

## 1. 전시 개요

전 시 명            엄마의 방  
참 여 작 가        박진영 Area Park + Vintage Furniture  
일        시        2022.9.16(금) - 10.23(일)  
문        의        양유진 E-mail : [carinofficial@naver.com](mailto:carinofficial@naver.com)  
051. 747. 930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달맞이길 65 번길 154

---

## 2. 전시 내용

CARIN은 시원한 가을을 맞이하여, 빈티지 가구와 함께 박진영 작가의 [엄마의 방] 展을 오픈한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엄마의 방에 들어온 듯한 가구와 사진이 함께 전시된다.

박진영은 알츠하이머로 기억을 잃어가고 있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사진에 담았다. 작가는 어머니의 추억과 과거를 추적 소환하기 위해 카메라를 메고 여행을 시작했다. 어머니에게 들은 과거에 가본 곳, 미래에 가고 싶었던 곳 등을 보여주기 위해 광활한 풍경 앞에 서게 된다. 지난 8년간 미국, 멕시코, 중국, 일본, 핀란드 등을 돌며 찍은 사진들로 고향인 부산에서 2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다큐멘터리 사진을 공부한 작가는 서부전선 최전방인 강화도에서 보병으로 근무하다 말년을 사진병으로 보냈다. 당시 사진계에서 볼 수 없었던 파노라마 카메라와 대형카메라로 도시풍경과 사건현장을 누비며 20-30대를 보냈다. 형식과 내용에 있어 새로운 다큐멘터리 사진의 시도와 모색을 하며 주목을 받았고, 현재도 진행중이다.

작가는 대형카메라와 파노라마카메라, 오로지 슬라이드 필름으로만 촬영해 왔으며 대상-세계를 향한 몰입을 위해서라도 디지털로의 변환을 거부한다. '사진의 길'은 대상과 만나는 사진가의 자세에서 비로소 시작되기 때문일 것이다.



꿈에 본 연못, 2018, C-print



아라키처럼



가지 못한 섬

그동안 작가는 사회적 다큐멘터리 즉 사회적 문제 나아가 타인의 재난을 다루어 왔다. 허나 이번 작업은 가족의 문제와 개인의 재난에 대한 이야기다. 외부로 향해 있던 작가의 카메라를 자신에게로 방향을 틀었다. 주로 다큐멘터리 사진을 찍던 작가가 풍경사진을 찍게 된 것처럼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고 그저 살아가는 것일 지도 모른다.

설명할 수 없는, 혹은 관여할 수 없는 일이나 상황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충실한 기록뿐이다.

- Area Park -

국립현대미술관 <우리가 알던 도시 - 강홍구, 박진영 2인전>, 에르메스 아뜰리에<사진의 길 - 미야기현에서 앨범을 줍다>, 고은사진미술관 <방랑기>, 금호미술관<The game>등에서 개인전을 13번 개최했다. 2008 광주비엔날레<연례보고>,대구사진비엔날레,국립현대미술관<한국사진 60년전>,서울시립미술관<한국 현대사진의 풍경>,경기도미술관<미술에 말걸기>,로댕갤러리(사춘기징후),아르코미술관(트랜스팝), 휴스턴뮤지엄, 산타바바라뮤지엄<Chaotic Harmony>,레인반하우스 사진박물관<Fast Forward>등 국내외에서 130여회의 기획전에 참여했다. 그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 고은사진미술관, 서울대 미술관, UBS컬렉션, Art Link, 서울올림픽미술관, 금호미술관, 이영미술관, 동강사진박물관등에 소장되어 있다.